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강 경 연*

서원대학교

이 제 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내담자의 심리·정서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진로 상담은 부정적 심리·정서를 극복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별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니지 않은 내담자라 하더라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지닌 긍정적 강점을 발견, 향상시켜 생애 전체에 걸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도록 조력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심리 자원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학술연구의 동향 및 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진로 상담 및 연구에서의 긍정적 심리자원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개념에서 도출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탄력성(resilience), 낙관성(optimism)’ 4개 요소와 Fitzgerald와 Rounds(1989)가 개발한 진로 및 직업상담 분야 연구주제 분류기준에서 도출한 ‘가치관, 생애주기, 은퇴,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발달단계, 진로성숙, 진로전환, 진로행동, 진로효능감, 흥미’ 11개 요소를 조합하여 KCI 등재지 중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과학 중분야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6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첫째, 일반적 동향(연도별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둘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로 상담 및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요소별로 어떤 방향의 추가적 관심을 더 기울여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긍정심리자본, 긍정적 심리자원,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진로상담, 진로교육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경연, 서원대학교 교양대학, (28674)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모충동)

Tel : 043-299-8901, E-mail : careerkang@seowon.ac.kr

Sheldon과 King(2001)은 지난 50여 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런 연구 경향은 심리학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Martin Seligman(1996)이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과 덕성에 대한 학문이기도 해야 한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제시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심리에 대해 문제 수정이라는 부정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개인의 약점보다 강점에 그리고 질병과 문제보다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심리학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상태 및 긍정 상태의 유발요인이나 증진방법,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강점,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더욱 조력하고자 하는 개입방법으로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Seligman(2004)은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적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대표 강점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일, 사랑, 자녀양육, 여가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하는 일상생활 중 한 개인에게 있어 일(work)이란 사회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자 자기(self) 개념을 실행하는 수단이 되며, 삶의 다른 역할들과 교차하면서 개인의 전반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Brown, 2013).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한 개인이 일의 세계에 종사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끊임없이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특히,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삶은 일과 더욱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을 꿈꾸고 조정해 나가는 청소년층,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결정하고 그 직업에 이르기 위해 실질적 준비를 해 나가는 청년층,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전직이나 재취업에 임하는 중장년층, 경제적 이유 또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 및 은퇴층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한 현대 직업(혹은 일)의 세계에서 각 개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나갈지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로 상담과 교육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긍정적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고, 더욱 생산적이었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개연성이 더 높았다는 Diener(2000)의 연구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진로상담에서 긍정적 심리·정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 심리·정서를 극복토록 상담 조력을 받고 있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니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닌 긍정적 강점을 발견하고 향상시켜 현재의 문제를 극복토록 하거나 생애 전체에 걸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자원을 마련토록 조력해 주는 것도 또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심리학계, 상담학계 및 교육학계에서는 그 간 진로와 심리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중 특히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긍정적 강점 변인과 진로 변인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힌 최근의 연구들(김민정, 2016;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조지연, 탁진국, 2016, 이호진, 김완일, 2016)은 진로 상담이나 교육 영역에서 정신질환이 아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 건강한 삶과 진로를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방향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도 있다.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강점에 대해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00)는 희망, 용기, 낙관성, 사회성 기술, 믿음, 선의, 정직, 자기조절, 인내, 몰입 등이 정신질환에 대응하여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하였다(하요상, 2013). 특히 Peterson과 Seligman(2003)은 세계 주요 종교와 철학 및 역사적 인물들이 제시하는 덕목,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문화적 특성, 정신의학에서 제시하는 인격 특질, 심리학계 연구 자료, 청소년 발달 주요 이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성격 강점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출하여 ‘지혜,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의 6개 덕목과 ‘호기심, 용감성, 열정, 희망, 사랑, 친절, 사회지능, 지도력, 용서, 자기효능감, 낙관성, 겸손, 자기조절, 영성’의 하위 24개 강점으로 이루어진 ‘VAI(The 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가 쉬운 일이 아니며, Peterson과 Seligman이 제시하는 24개 성격적 강점에 대한 조작적 정의나 측정 방법은 개별적으로 일부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긍정심리학이 산업·조직 분야에 적용되면

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성격 강점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Luthans, 2002). Luthans, Avolio, Avey와 Norman(2007)은 긍정심리 및 동기유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개 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positive psychological state)’인 4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하였고 이를 ‘긍정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희망(hope), 복원력(탄력성, resilience), 낙관성(optimism)’으로 정의하였다(김주섭, 2013; 오은혜, 탁진국, 2012). 그런데, Luthans 등(2007)이 활용한 탐색적 연구의 표본이 대학생이라는 점(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Luthans, Avolio, & Avey, 2008; Luthans, Avey, & Patera, 200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자본 4요소는 조직행동과 인적자원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생활 적응, 진로 탐색과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이르는 범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uthans, Luthans와 Jensen(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긍정심리자본이 조직행동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것에 비해 타 분야에서는 최근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 분석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KCI 등재 학술지 중 긍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의 관계를 다룬 논문 56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로 상담 및 연구에

서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어떻게 다루어 내담자를 조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사하는 바는 어떠한지, 향후에는 어떤 자원에 대해 어떤 방향의 추가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볼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일반적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향후 진로 상담 및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변인 적용에 대한 시사점은 어떠한가?

방 법

긍정심리자본 및 진로 변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 상담 및 연구 분야에서 긍정적 심리 자원과 진로 변인으로 분석대상을 집중하고자 각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긍정적 심리 자원은 Luthans, Norman, Avolio와 Avey(2008)가 긍정심리학 및 동기유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긍정적 성격 강점으로 제시한 긍정심리자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내지 탄성력, 회복력, 적응유연성), 낙관성'을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복원력(내지 탄성력, 회복력, 적응유연성)'에 대해 심리학 용어 사전을 토대로 '탄력성'으로 대표하여 기술하였다.

진로 변인 요소는 3단계에 걸친 작업을 통해 확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조항 등(2009)이 '상담학연구'와 '상담 및 심리치료'에 수록된 진로상담 분야 논문 152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를 유목화 하여 도출한 '진로선택, 진로의사결정, 진로발달, 상담 및 프로그램, 진로사정' 5분야를 도입하였다. 이 중 개별 프로그램 효과에 집중한 '상담 및 프로그램 연구'는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Fitzgerald와 Rounds(1989)가 개발한 15개 진로 연구주제 분류기준을 1단계에서 도출한 4개 분야에 적절히 배치하여 각 하위 주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학 박사 1명, 진로상담 박사과정 수료생 2명이 2차에 걸쳐 적합성 판단과 배치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흥미, 가치관, 진로효능감, 자아정체감, Holland 성격유형 또는 개인-환경 일치'가 둘째,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진로행동, 진로결정 수준 내지 유형'이 셋째,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은퇴, 진로전환'이 넷째, 진로사정과 관련하여 '흥미, 가치관, Holland 성격유형, 진로성숙도'가 유목화 되었다. 이 중 중복되는 키워드를 제외하면 '흥미, 가치관, 진로효능감, 자아정체감, Holland 성격유형, 진로행동, 진로결정(미결정 내지 유형),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은퇴, 진로전환, 진로성숙' 12개로 압축되며, 이 중 Holland 성격유형은 흥미에 포함시켜 11개로 다시 압축하였다.

3단계에서는 11개 진로 변인의 대표성을 재확인하였다. 최윤정과 이지은(2014)이 KCI등재 학술지에 수록된 진로 분야 논문 106편을 분석하여 도출한 진로 개입 주요 성과 변인(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

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로써 11개 진로 변인은 국내 진로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고 이를 본 연구에 적용키로 확정하였다.

자료수집

일차적으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소 4개와 진로 변인 하위요소 11개 키워드를 교차 조합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대학도서관, 학회별 학술지 검색을 통해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이 중 이론적 연구, 개별 프로그램 효과를 다룬 연구와 메타분석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소가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것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기준 KCI 등재학술지 목록에서 ‘심리과학, 사회과학, 교육학’ 중분야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56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진로 상담, 교육에 관한 연구는 해당 분야의 학술지 성격에 특히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56편의 목록은 부록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한편 분석대상 연구가 긍정심리자본이나 진로 이외의 요소를 변인에 포함시켜 다루었을 경우에는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연결하여 설명한 것만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한 연구에서 각 변인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요소가 2개 이상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조합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즉, 예를 들어 독립변인을 자기효능

감으로 하고 종속변인을 진로결정과 진로행동으로 한 경우(구본용, 유제민, 2010)에는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 식으로 2개로 산정한 경우가 그러하다.

일반동향 분석 결과

연도별 빈도

각 학술지 별로 KCI 등재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 현황을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유형별 논문의 연도별 빈도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 이후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과학 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전반적으로 연구가 활발해진 2007년 이후부터 상담학, 심리학, 진로교육, 청소년학 분야에서 연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진로 교육이나 상담의 중요성과 관심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 분포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유형별 논문의 학술지 분포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인이 자기효능감일 경우는 학술지 전반에 분포되어 있고, 낙관성일 경우는 상담학, 심리학, 진로교육, 청소년학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희망이나 탄력성의 경우에는 연구물이 소수인 점을 차치하고라도 상담학, 심리학, 진로교육 분야 학술지에 분포된 경우가

표 1. 긍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 논문의 연도별 빈도

분야	학술지명	긍정심리자본 4요소 × 진로변인 12요소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학	농업교육과	-	-	-	-	-	1	-	-	-	-	-	-	-	-	-	-	1
	인지자원개발	-	-	-	-	-	-	-	-	-	-	-	1	-	-	-	-	1
	유아교육학논집	-	-	-	-	-	-	-	-	-	-	-	-	3	1	5	2	16
	진로교육연구	1	-	-	-	-	-	-	3	1	-	-	-	-	-	-	-	1
	한국교육학연구	-	-	-	-	-	-	-	-	-	-	-	-	-	-	-	-	1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	-	-	-	-	-	-	-	1	-	-	-	-	1
	한국기술교육학회지	-	-	-	-	-	1	-	-	-	-	-	-	-	-	-	-	1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	-	-	-	-	-	-	-	-	-	-	-	-	-	-	1
	한국실과교육학회지	-	-	-	-	-	-	-	-	-	-	-	-	-	-	-	-	1
	상담학연구	-	-	-	-	-	-	-	-	-	2	1	2	4	1	1	-	10
사회과학일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	-	-	-	-	-	-	-	-	-	-	-	1	-	-	1
	사회과학연구논총	-	-	-	-	-	-	-	-	-	-	-	-	-	-	-	-	1
	청소년상담연구	-	-	-	-	-	-	-	-	-	-	-	-	-	-	-	-	1
	한국심리학회지	-	-	-	-	1	1	1	1	2	1	1	-	-	-	-	-	8
기타사회과학	한국가족치료학회지	-	-	-	-	-	-	-	-	-	-	-	-	-	1	-	-	1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	-	-	-	-	-	-	-	-	-	-	-	-	-	-	1
	청소년학연구	-	-	-	-	-	-	-	1	1	1	1	1	1	1	1	1	8
총계	1	0	0	0	1	4	1	4	5	4	5	4	6	8	7	6	56	

표 2. 긍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학술지 분포

진로변인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총계
	학술지명(빈도)					
종속 변인	가치관	-	-	-	-	-
	생애주기	-	-	-	-	-
	은퇴	-	-	-	한국심리학회지(1)	1
	자아정체감	청소년학연구(1)	-	-	-	1
	진로결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1) 상담학연구(1) 유아교육학논집(1) 진로교육연구(2) 청소년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한국청소년연구(2)	-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3
	진로발달단계	-	-	-	-	-
	진로성숙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2) 한국심리학회지(1) 한국청소년연구(1)	-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1)	상담학연구(1) 청소년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0
	진로전환	-	-	-	-	-
	진로행동	상담학연구(2)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	진로교육연구(2)	진로교육연구(1)	7
	진로효능감	상담학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	한국가족관계 학회지(1)	-	3
	흥미	사회과학연구논총(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기술교육학회지(1)	-	-	-	4
	매개변인	진로교육연구(4) 청소년학연구(1) 한국가족치료학회지(1) 한국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상담학연구(2) 청소년상담연구(1)	진로교육연구(1) 청소년학연구(1) 특수교육재활 과학연구(1)	상담학연구(1) 진로교육연구(1) 한국심리학회지(1)	17
	총 계	33	3	9	11	56

적었다.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에 보다 정통적인 관련성이 깊은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

변인 조합 유형별 연구대상을 초, 중, 고,

대학의 학령기 및 성인으로 나누어 표 3에 제시하였다. 하나의 연구가 여러 학령기를 혼합하여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학령기 종류 수/1’로 계산하여 총계에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대학생 28.5편(54.8%), 중학생 9.8편(18.8%), 고등학생 8.7편(16.7%), 초등학생 3편(5.8%), 성인과 기타 각 1편(1.9%)으로 나

표 3. 긍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연구대상

진로변인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가치관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성인 1
	자아정체감	대학생 1	-	-	-
	진로결정	중학생 + 고등학생 1 고등학생 2 고등학생+대학생 1 대학생 4 기타(교육원생) 1	-	대학생 1	고등학생 1 대학생 2
	진로발달단계	-	-	-	-
종속변인	진로성숙	초등학생 1 중학생 1 중학생 + 고등학생 1 중학생~고등학생(중단) 1 대학생 1	-	고등학생 1 대학생 1	중학생 3
	진로전환	-	-	-	-
	진로행동	중학생 1 대학생 3	-	대학생 2	대학생 1
	진로효능감	중학생 1 대학생 1	-	대학생 1	-
	흥미	초등학생 1 중학생 1 대학생 2	-	-	-
매개변인		중학생 + 고등학생 2 고등학생 1 대학생 5	고등학생 1 대학생 2	대학생 3	초등학생 1 대학생 2
총계	56(100%)	초등 3(5.4) 중등 9.8(17.5)	고등 8.7(15.5)	대학 32.5(58.0)	성인 1(1.8) 기타 1(1.8)

타났다.

희망, 탄력성, 낙관성과 진로 변인을 조합으로 한 연구 대상의 학령이 단일적인데 비해,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을 조합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학령을 혼합한 비교연구 4편, 중단연구 1편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한 연구에 여러 가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 기술통계나 상관분석 등을 제외하였고 특히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에 여러 변인이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긍정심리자본 변인과 진로 변인 간의

표 4. 긍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의 분석방법

진로변인 \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가치관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회귀분석 1		
자아정체감	구조방정식 1	-	-	-		
진로결정	경로분석 1	-	구조방정식 1	경로분석 1		
	다층선형모형분석 1 회귀분석 7			회귀분석 2		
진로발달단계	-	-	-	-		
종속변인	경로분석 1	-	회귀분석 2	구조방정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2			회귀분석 2		
진로전환	-	-	-	-		
진로행동	구조방정식 3 회귀분석 1	-	회귀분석 2	회귀분석 1		
진로효능감	구조방정식 1 일원변량분석 1	-	회귀분석 1	-		
흥미	구조방정식 1 상관분석 1 일원변량분석 1 회귀분석 1	-	-	-		
매개변인	구조방정식 4 회귀분석 4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구조방정식 2 회귀분석 1		
총계 56(100%)	경로분석 3(5.4)	구조방정식 20(35.7)	다층선형모형 분석 1(1.8)	상관분석 1(1.8)	일원변량분석 2(3.6)	회귀분석 29(51.8)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방법 만을 채택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회귀분석 29편(51.8%)에는 단순, 중다, 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독립변인이 각 진로 변인을 얼마나 예측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과 경로분석 합계는 23편(41.1%)으로서 회귀분석 다음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나 예측성을 보는 것을 넘어서 긍정심리자본 독립변인이 진로 관련 종속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특히,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에서 다층선형모형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편(김민선, 서영석, 2010)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양상과 변화율에 있어서 각 개인의 효과도 함께 검증한 것이다. 진로 상담, 교육 연구 분야에서 중단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사례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긍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 11요소를 교차 조합하여 연구물을 분류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자기효능감인 연구가 33편(59.0%), 낙관성이 11편(19.6%), 탄력성이 9편(16.1%), 희망이 3편(5.4%)이었다. 긍정심리자본 4요소 중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희망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 3편은 모두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에 불과하였다. 다만,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희망, 탄력성, 낙관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경우에는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행동, 진로효능감에 국한된 소수이긴 하지만 2010년대에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점이 눈에 띈다.

진로 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인이 진로결정인 연구는 13편(23.2%), 진로성숙이 10편(17.9%), 진로행동이 7편(12.5%), 흥미가 4편(7.1%), 진로관련 효능감이 3편(5.4%), 자아정체감이 1편(1.8%), 은퇴가 1편(1.8%), 각 진로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가 17편(30.4%)이었다. 그러나 진로 변인이 가치관, 생애주기, 진로발달단계, 진로전환인 경우의 연구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4가지의 긍정심리자본은 진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5를 기준으로 긍정심리자본 4요소와 진로 변인 종류를 조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진로 상담 현장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

자기효능감은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효능감, 흥미의 여섯 가지 진로 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진로 변인별로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송현옥, 박아청과 최성열(201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고, 이 때 자기효능감에는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

표 5. 긍정심리자본(독립변인)과 진로 변인(종속변인) 유형별 논문 종류

진로변인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	
	저자(연도)					
진로변인	가치관	-	-	-	-	
	생애주기	-	-	-	-	
	은퇴	-	-	-	정혜경, 정영숙(2010)	
	자아정체감	송현옥 등(2010)	-	-	-	
	진로결정	구본용, 유제민(2010)	-	-	-	-
		김경옥(2009)	-	-	-	-
		김민선, 서영석(2010)	-	-	-	-
		김희수 외(2005)	-	-	-	손은령, 이순희(2012)
		이백령 외(2012)	-	-	이지혜 외(2011)	이순희, 손은령(2013)
		이상길(2008)	-	-	-	이재창 외(2005)
종속변인	이홍진(2007)	-	-	-	-	
	장선철(2005)	-	-	-	-	
	조준오 외(2011)	-	-	-	-	
	진로발달단계	-	-	-	-	
	진로성숙	김도영, 임영식(2013)	-	-	-	-
		김재호, 정철영(2006)	-	-	강영미 외(2009)	권혜경, 이희경(2004)
		박완성, 김미숙(2009)	-	-	김봉환(2014)	서혜경, 신현숙(2008)
		이유리, 김남중(2013)	-	-	-	김나래 외(2012)
	최수정(2007)	-	-	-	-	
	진로전환	-	-	-	-	
진로행동	구본용, 유제민(2010)	-	-	-	-	
	김경옥(2009)	-	-	김봉환(2014)	-	
	김순미, 이현림(2008)	-	-	김지연, 이기학(2014)	유기은, 이기학(2015)	
	김진숙(2013)	-	-	-	-	
진로효능감	천석준, 이기학(2007)	-	-	임주영, 윤경자(2013)	-	
	김진숙(2013)	-	-	-	-	
흥미	강혜영(2011)	-	-	-	-	
	김남규(2000)	-	-	-	-	
	이지연, 양난미(2007)	-	-	-	-	
	조윤희 등(2005)	-	-	-	-	
매개변인	김도연 외(2012)	-	-	-	-	
	김선경, 강혜영(2011)	-	-	-	-	
	박현미, 장석진(2013)	-	-	-	-	
	안혜진, 정미경(2015)	-	-	박주현, 유성경(2012)	김민선(2014)	
	이주연, 이기학(2014)	-	-	양현주, 연구진(2015)	김홍석, 노영천(2013)	
	이현주(2012)	-	-	차이름, 이희경(2014)	문승태, 박미하(2013)	
	정미예(2008)	-	-	함윤정, 김용수(2015)	정민, 노안영(2008)	
	조현재(2015)	-	-	-	-	

소년기 중요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진로 상담, 교육 현장에서 자기효능감을 다루어 주되 이 때 학생(내담자)이 가정, 또래 관계 등에서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직업에 대한 결단력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장선철, 2005), 특히 숙달목표가 진로결정수준을 예언하였다(김경옥, 2009). 이는 대학생 내담자들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유능감을 드러낼 수 있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진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자신이 선택한 목표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진로 교육,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능감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길(2008)은 대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발달단계 상 청소년기에서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황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입시교육 문화 속에서 대학생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직업 위주의 진로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이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거나(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이백령, 김민

배, 문승태, 2012), 여자대학생의 경우에 부모의 긍정적 관여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사이를 매개하는(구본용, 유제민, 2010) 점을 참고하여, 상담과정에서 학령기나 성별에 따라 부모 등의 주변인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변인 관계를 다룬 모든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영향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남녀학생을 비교하는 후속연구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중2~고1 대상 종단연구(최수정, 2007)에 의하면 모든 학령기의 진로성숙도에 자기효능감이 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중2 때의 초기값이 중3 때 약간 높아졌다가 고1 때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진로행동 변인 관계에 대해서 자기효능감이 진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구본용, 유제민, 2010; 김경옥, 2009)과 직접적인 효과가 없었음(김순미, 이현림, 2008; 김진숙, 2013)으로 연구 간 결과가 불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2편(김경옥, 2009; 김순미, 이현림, 2008)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타당화한 동일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일치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진로행동은 진로준비행동, 진로탐색행동 등 다양한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후속 연구는 구체적인 진로행동 개념을 정립하여

적용함으로써 명확한 연구 결과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섯째, 자기효능감과 진로효능감 변인 관계에 대해서는 각 연구(김진숙, 2013; 천석준, 이기학, 2007)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화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진로효능감이 별개의 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의 결과해석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Hackett과 Betz(1981)가 직업적 자기효능감을 제안한 이후 진로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보다는 Taylor와 Betz(1983)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라는 범위 내의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변인과의 관계 유의성 또한 높을 것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흥미 변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둘 간의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가 1편, Holland 성격유형으로 대표되는 직업흥미 하위유형들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3편으로 Holland 직업성격유형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

Holland(1997)는 변별성 높은 사람이 변별성 높은 직업을 선택하여 상호작용할 때 직업만족도나 성취도 등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고자 해왔는데,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치성, 일관성, 변별성에 대한 가정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즉, 가설이 지지된 몇몇 연구(구남희, 1998; 안창규, 최태진, 홍준자, 2005; 황매향, 2004)에서는 변별성에 따른 개입방법의 차별화나 각기 다른 특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들(곽필순, 김봉환, 2005; 김지현, 박관성, 2007)에서

는 혼재된 결과에 대해 문화적 차이나 측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김봉환 등, 2010).

직업흥미와 자기효능감을 연결하여 내담자에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여전히 Holland 이론의 가정 및 검사결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희망과 진로 변인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준에 의하면 희망과 진로 변인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고, 다만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가 3편 있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름과 이희경(2014)은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할 때 희망이 심리적 진로장벽에 부분매개, 환경적 진로장벽에 완전매개 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지속시키는 동기가 된다고 하며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현주와 연구진(2015)은 부모의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희망의 수준을 높여주고 이로써 진로준비행동이 더욱 긍정적이었음을 보고하면서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희망에 개입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박주현과 유성경(2012)은 특히 대학생의 경우 일희망이 소명과 진로성숙 간에 매개효과가 있으므로 일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진로 발달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진로 상담, 교육 장면에서 직업적 흥미나 학습경험, 가족의 지지와 같은 요소를 넘어서서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일의 목적을 찾고 두 목적 간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실제적 개입

방법으로서 희망을 적용하는 경험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탄력성과 진로 변인

2009년 이후 탄력성과 진로결정, 진로효능감과 관계에 대해 각 1편, 진로성숙, 진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각 2편씩 연구가 진행된 정도로서 경험적 연구의 시작 단계라고 할 만 하였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강영미, 유순화와 윤경미(2009)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중 지적, 의지적 차원이 진로성숙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소(임주영, 윤경자, 2013) 및 진로준비행동(김봉환, 2014; 김지연, 이기학, 2015)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봉환(2014)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경우에는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았는데 특히 적응유연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비해 진로태도성숙에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 외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고(장이슬, 송병국, 2015),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증가하며(김지연, 이기학, 2014), 적응적 완벽주의가 대학생들의 탄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진로미결정이 낮아짐(김민선, 2014)을 보고하는 등 실제 교육,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변인을 제안한 연구들도 있었다.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경우 진로 행동적 차원이 더욱 요구되는 바, 탄력성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낙관성과 진로 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생들의 낙관성은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합리적, 직관적, 확신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진로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즉, 진로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보일 수 있는 비관성은 의존성이나 미결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낙관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연구 3편 모두에서 낙관성은 진로태도성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낙관성을 지닌 중학생의 진로태도를 더욱 성숙하게끔 하는 매개역할을 하였고(서혜경, 신현숙, 2008),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도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때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 더욱 증가하였다(김나래, 마림, 김경아, 이동귀, 2012).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낙관성을 높이는 것에 직접적으

로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고려할 수 있다. 진로성숙은 청소년의 중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이다. 낙관성에 개입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기 진로성숙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 56편 중 유일하게 은퇴 변인을 다룬 연구가 확인되었다. 정혜경, 정영숙(2010)에 따르면 은퇴한 것에 대한 만족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영향을 미쳤던 반면, 은퇴 후 주관적 안녕감에는 낙관성이 영향을 미쳤다. 은퇴 후 적응에 유용한 변인이 될 수 있는 낙관성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진로 상담이나 교육에서 부정적 심리·정서를 극복토록 조력을 받는 내담자나 학생뿐만 아니라 특별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니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지닌 긍정적 강점을 발견하고 향상시킴으로써 현재의 진로문제를 극복하거나 생애 전체에 걸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잘 꾸려나갈 자원을 마련토록 조력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점에 입각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일반동향(연구대상, 연구방법, 연도별 빈도) 부문과 연구결과 부문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해봄으로써 진로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어떻게 다루어 내담자를 조력하고자 하고 있으며 시

사하는 바는 어떠한지, 향후에는 어떤 자원에 대해 어떤 방향의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여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의 일반동향(대상, 분석방법, 연도별 빈도) 부문이다.

첫째,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 집단에 치중된 편(96.4%) 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에 거의 절반이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진로라는 용어는 매우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개인의 성장, 발달, 성숙에 따른 단계적인 진학 및 직업 선택, 적응, 전환 등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진로발달과 선택의 문제는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중요하다. 성인들은 직업탐색에 대한 두려움, 직업과 직장환경에의 적응, 승진, 은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다중역할 등 진로전환이나 적응과 관련한 심리적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고(Krumboltz, 1996) 이에 대한 개입은 학령기와는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긍정심리자본 요소와 은퇴, 진로전환 간의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진로상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퇴는 한 개인에게 하나의 위기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은퇴 후 적응은 성격 특성, 경제적 자원,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자원과 은퇴 과정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장휘숙, 2006). 따라서, 은퇴 후 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체적, 물질적 요소뿐만 아

나라 적용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29편(51.8%), 구조방정식과 경로분석 합계 23편(41.1%)이 주를 이루었다. 구조방정식이나 경로모형 검증 분석방법이 많이 이용된 것은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나 예측성을 보는 것을 넘어서 긍정심리자본이 진로 관련 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아졌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긍정심리자본 측정에 사용한 도구는 대개 국외의 것을 번안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노력도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라는 큰 틀 내에서 나뉘는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김진숙, 2013)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 만큼 다양한 검사들을 유목화 하는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셋째, 연도별 빈도는 2007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작더라도 꾸준히 상승되고 있어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 이외 낙관성, 탄력성, 희망과 관련하여 2010년대에 이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이 자기효능감인 경우에 편중되어 있었고, 낙관성, 탄력성, 희망의 경우에는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경우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희망을 직접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탄력성과 낙관성은 진로 변인 일부(진로결정, 진

로성숙, 진로행동)에 대해 진행되어 있었다. 진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해 보인다. 개인의 심리적 기제는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진로 변인 또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떤 양상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들의 관계, 긍정심리자본들과 각 진로 변인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이 진로 변인의 관계 속에서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부문이다. 연구결과는 대체적으로 긍정심리자본 4요소가 진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 분석에서 제안한 시사점 이외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진로성숙, 진로행동, 진로효능감, 흥미에 이르는 다양한 진로 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대상의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진로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뚜렷한 바, 어떻게 하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개입내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비교연구, 종단연구, 개입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으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변인으로서의 진로자기효능감을 다루고자 할 때에는 척도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통해 발달하

는 것이고 특수 자기효능감은 특정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통해 발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상보적 또는 억제적으로 작용한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높지만 특정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낮을 수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가능(Eden, 2001)하기 때문이다. 새롭고 낯선 영역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먼저 작동하고 새로운 영역에 익숙해지면서 특수 자기효능감이 점차 강하게 작동하게 되며(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특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특수 자기효능감이 관찰 가능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김진숙, 2013; Chen et al., 2001, 2004)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관련 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현장에서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방법적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희망은 시간이나 상황에 안정적이고 개인차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 변화에 내재하는 공통요인(Snyder & Taylor, 2000)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긍정 특질(Rand, 2008)로 평가받고 있다.

희망은 바라는 목표에 대해 경로를 도출하고, 그런 경로들을 사용하려는 주도성을 통해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인지된 능력(Snyder, 2002)으로서, 일과 관련하여서는 ‘외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로목표와 미래 일에 대해 몰입하는 것(Diemer & Blustein, 2007)’이다. 이에 진로와 관련하여서도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진로분야 연구에서는 희망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의 개념 정립에 대한 연구, 희망과 유사한 의미를 지

닌 낙관성이나 결과기대와 같은 개념 간 구분을 시도하는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후 희망 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희망의 2요소(주도사고, 인지사고)가 각각 진로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검증하거나 이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도 점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탄력성과 진로변인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2010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정도라고 할 만 하였다. 그러나 최근 탄력성 개념을 바탕으로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성인 진로상담 적용 가능성을 도출한 연구(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도구 개발 연구(김미경, 2013) 등 진로와 관련한 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탄력성은 심리학에서 출발한 용어로서 역경에 처해서도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행동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하는 상태(Masten & Reed, 2002)를 말한다.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개인의 특질(Brooks, 2005; Richardson, 2002)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Flach, 1997).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전통적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매칭하는 방법론이 주를 이루어왔다(Savickas, 2001). 그러나 직업의 생성과 소멸뿐만 아니라 직업 유지와 전환, 직업 환경의 변화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직업특징이 고정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한 탄력성으로의 개념적 확대 및 근거 구축,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 연구 또는 질적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낙관성은 인지적 요소의 하나로서 귀

인의 개념을 시·공간적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 방식을 포함하여 결과기대 영역까지 수렴한 것으로서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목표수행을 위한 준비행동에 필수적인 것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상희, 2006; 이순희, 손은령, 2013).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유기은, 이기학, 2015)가 시작되었음은 반가운 일이다. 낙관성과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의 구조적 관계와 영향력 규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긍정심리 자본들은 개별적으로 진로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다른 심리적 기제나 진로 변인을 매개로 할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크거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에는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자원들을 탐색하여 접목하되 이 때 매개변인, 조절변인을 잘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낙관성 간에는 공통된 요인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는 배(손은령, 이순희, 2012)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오히려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유목화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진로 변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동향과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상담, 교육 장면에서의 개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장 적용과 연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시도하였기 때문에, KCI 등재 이상의 학술지 중 교육학, 사회과학,

심리학 분야에 게재된 연구만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긍정적 심리 자원 중 긍정심리자본 요소만을 다루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긍정심리자본 요소를 포함하는 긍정적 성격 특성과 진로 변인에 관한 연구는 석·박사 학위 논문 수준에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들과 석·박사 학위 논문의 내용을 포함하여 더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실제 상담 현장이나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438.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강혜영 (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2(1), 115-127.
- 곽필순, 김봉환 (2005). Holland의 직업성격과 직업환경의 일치도 및 직무만족도와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6(3), 837-848.
- 구남희 (1998). Holland의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123-139.
- 구분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나래, 마림, 김경아, 이동귀 (2012). 중학생의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4), 1799-1818.
- 김남규 (2000). 직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1, 161-186.
- 김도연, 오옥선, 김성봉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71-91.
- 김도영, 임영식 (2013). 청소년활동과 비행 간의 경로모형 검증 - 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20(5), 157-182.
- 김미경 (2013).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선 (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4), 145-166.
- 김민선, 서영석 (2010). 자기효능감 · 개인배경 · 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2), 67-96.
- 김민정 (2016). 대학생의 강점인식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점활용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11-1830.
- 김봉환 (2014).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 등 (2010). 진로상담이론-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pp.50-66.
- 김선경, 강혜영 (2011).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75-193.
- 김순미, 이현림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학술대회 논문집: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51-64.
- 김재호, 정철영 (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4), 119-137.
- 김주섭 (2013).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6(4), 31-59.
- 김지연, 이기학 (2015).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지현, 박관성 (2007). 교직진출 희망자의 진

- 로만족 및 결정수준과 Holland 직업흥미 이론에서의 일치성, 일관성, 변별성. *진로교육연구*, 20(3), 43-53.
- 김진숙 (2013). 중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4(2), 1347-1363.
- 김홍석, 노영천 (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친구 및 교사 지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817-2832.
- 김희수, 홍성훈, 윤은중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문승태, 박미하 (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85-204.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박현미, 장석진 (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1-21.
- 서혜경, 신현숙 (2008). 중학생의 낙관성과 비관성,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15(7), 181-202.
- 손은령,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송현옥, 박아청, 최성열 (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안창규, 최태진, 홍준자 (2005).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방식. *상담학연구*, 6(2), 449-468.
- 안혜진, 정미경 (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9-303.
- 양현주, 연규진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관련 부·모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3(1), 199-227.
- 오은혜, 탁진국 (2012). 경력계획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미래시간전망과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4), 727-748.
- 오인수 (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 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 유기은, 이기학 (2015).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통제력 착각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8(2), 65-86.
-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사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이백령, 김민배, 문승태 (2012).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53-72.

-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요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유리, 김남중 (2013).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활적용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97-120.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수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주연, 이기학 (2014). 내현적 자기에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서. *진로교육연구*, 27(1), 65-81.
- 이지연, 양난미 (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선택모형 검증 -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와 목표의 관계에서 -. *사회과학논총*, 17, 75-99.
-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19-34.
- 이현주 (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중재효과. *진로교육연구*, 25(4), 199-220.
- 이호진, 김완일 (2016). 특성화 고등학생의 주도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강점 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311-333.
- 이홍진 (2007). 무예수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4), 81-113.
-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 장선철 (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3), 117-134.
- 장이슬, 송병국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장은주, 이종연 (2014). 희망의 주도사고 및 경로사고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및 주관적 안녕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5(1), 371-392.
- 장휘숙 (2006). 성인심리학: 성인발달, 노화, 죽음. 박영사.
- 정미예 (2008). 대학생의 진로장애 예기와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27(3), 181-200.
- 정민, 노안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91-405.
- 정혜경, 정영숙 (2010). 은퇴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3(3), 51-70.
-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

- 향: 강점활용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1-27.
- 조준오, 송주연, 김윤희 (2011).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55-75.
- 조윤희, 이한규, 이용환 (2005).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아효능감 및 진로흥미와의 관계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5(1), 23-40.
- 조지연, 탁진국 (2016). 긍정심리기반 강점 코칭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279-304.
- 조향,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조현재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4), 59-77.
- 차아름, 이회경 (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5(1), 343-358.
- 천석준, 이기학 (2007).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잠재집단,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600-601.
- 최수정 (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 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18(3), 31-57.
- 최윤정, 이지은 (2014). 진로 개입 성과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상담학연구*, 15(1), 321-341.
- 하요상 (2013). 긍정심리학의 구성요소와 초등학생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14(4), 2307-2325.
- 함윤정, 김용수 (2015).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235-251.
- 황매향 (2004).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한 Holland 이론의 문화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53-666.
- Brook, R. B. (2005). The power of parenting. In R. B. Books & S. Goldstein (Ed),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pp.297-314).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 Brown, S. D. & Lent, R. W. (2013).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2nd ed.)*. NJ: Wiley.
- Diemer, M. A., & Blustein, D. 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Fitzgerald, L. F., & J. B. Rounds (1989). Vocational behavior, 1988: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105-163.
- Flach, F. F. (1997). *Resilience: How to bounce back when the going gets rough*. New York: Hatherleigh Press.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 326-339.
- Holland, J. L. (1997). *The Self-Directed Search*.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Krumboltz, J. D. (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M. L., Savickas & W. Bruce Walsh (Ed),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55-80). Palo Alto, CA: Davies-Black.
- Martin Seligman (2006).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김인자 역). 물푸레(원전은 2004에 출판).
- Masten, A. S., & Reed, M. J. (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and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74-88). New York, NY: Oxford Univ. Press.
- Luthans, F. (2002b).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 Avolio, B., Avey, J. B., & Norman, S.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Personal Psychology*, 60, 541-572.
- Luthans, F., Norman, S. M., Avolio, B. J., & Avey, J. B. (2008). The medic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 219-238.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3). Character strength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Psychological Science*, 14, 381-384.
- Rand, K. L. (2008). Hope and Optimism: Latent structures and influences on grade expectancy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77(1), 231-260.
- Richardson, G. E. (2002). The metatheory of resilience and resilien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307-321.
- Savickas,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 Dispositions, concerns, and narratives. In F. Leong (Ed), *Contemporary models in vocational psychology* (pp. 295-320). Mahwah, NJ: Erlbaum.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1), 5.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6.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ope*. New York: The Free Press.
- Snyder, C. R. (2002). Hope Theory: Rainbow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nyder, C. R., & Taylor, J. D. (2000). Hope as a common factor across psychotherapy approaches: a lesson from the Dodo's verdict. In C. R. Snyder (Eds.),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 Applications* (pp.89-108). New York: Academic Press.
- Swanson, J. L., & O'Brien, K. M. (2002). Train career counselors: Meeting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In S. G. Niles (Eds.), *Adult career development: Concepts, issues and practices*(3rd ed., pp.354-369. Columbus, OH: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원 고 접 수 일 : 2016. 10. 19.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2.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6. 12. 23.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related variables in Korea

Kyoung-Yeoun Kang

Seowon University

Je-Kyung Le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It is important that career counselling helps the client to overcome a negative psychology or emotion. But it is also worthwhile work that helping the client who has not psychological problem and lives in rapidly changing society to manage a career: life-span perspectives for oneself by developing their positive psychology strength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trends and to inquire into issues of career counselling or study in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resource and career variable. A total 56 empirical articles i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social science, psychology science fields were classified into 4 component elemen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and 11 component elements of substantive areas of career and vocational counseling research devised (Fitzgerald & Rounds, 1989). Conclusively (1) analyzed trends as follows: yearly, objects, methodologies distribution, (2) analyzed results of rela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resource and career variable, (3) discussed a way to application.

Key words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hope, resilience, optimism, career counselling

부 록

분석대상 논문 목록

공정 심리 자본	2016 KCI 목록표 중분야	저자(연도)	제목
자기 효 능 감	교육학	김남규(2000)	직업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결과 기대감이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김순미, 이현림(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김재호, 정철영(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박완성, 김미숙(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안혜진, 정미경(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이백영 외(2012)	농업계 특성화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상길(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요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이주연, 이기학(2014)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 사회인지론이론적 관점에서
		이현주(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중재효과
		장선철(2005)	대학생의 개인변인,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정미애(2008)	대학생의 진로장애 예기와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조윤희 외(2005)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아효능감 및 진로흥미와의 관계분석
		조준우 외(2011)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현재(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과학 일반		강혜영(2011)	이공계 대학생의 흥미-전공일치도, 자기효능감과 전공적응도 간의 관계
		구분용, 유계민(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진숙(2013)	중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이지연, 양난미(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선택모형 검증-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와 목표의 관계에서-
심리과학		김경옥(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선경, 강혜영(2011)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현미, 장석진(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천석준, 이기학(2007)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잠재집단,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자기 효 능 감	기타 사회과학	김도연 외(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도영, 임영석(2013)	청소년활동과 비행 간의 경로모형 검증-자기효능감, 적응유연성,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김민선, 서영석(2010)	자기효능감·개인배경·맥락적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김희수 외(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송현옥 외(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이유리, 김남중(2013)	여자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활적용 매개효과
		이홍진(2007)	무예수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식 변화모형

분석대상 논문 목록

(계속)

긍정 심리 자본	2016 KCI 목록표 중분야	저자(연도)	제목	
희 망	사회과학 일반	박주현, 유성경(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차아름, 이희경(2014)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심리과학	양현주, 연규진(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관련 부·모 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타사회 과학	함윤경, 김용수(2015)	장대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탄 력 성		김봉환(2014)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교육학	김민선(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김지연, 이기학(2015)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이지혜 외(2011)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과학 일반	임주영, 윤경자(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낙 관 성	기타 사회과학	강영미 외(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	손은령, 이순희(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유기은, 이기학(2015)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통제력 착각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 일반	김나래 외(2012)	중학생의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김홍석, 노영천(2013)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친구 및 교사 지지와 낙관성의 매개효과	
		이순희, 손은령(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재창 외(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심리과학	권혜경, 이희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정민, 노안영(2008)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낙관성의 매개효과	
정혜경, 정영숙(2010)		은퇴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기타 사회과학	서혜경, 신현숙(2008)	중학생의 낙관성과 비관성,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진로태도성숙의 관계모형 검증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주) * 중복목록임.